

〈제 550호〉

-주간- **광주 경영계**

KEF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남화토건

◆ 최상준 회장 '길을 뚫어라' 출간

“20년된 자료를 역사와 증인 될 것 같아 정리”



2000년부터 최근까지 언론 보도 내용 총망라
발자취·생애와 활동·이·취임 인사 등 4장 구성

“지난 세월 저에 대한 퇴락된 보도 자료들이 이번에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엮으니 흐트러진 마음이 정돈돼 감사하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 20년 동안 보도됐던 기사를 스크랩해 둔 단편 글들을 모아 정리, 수록해 최근 펴낸 '길을 뚫어라'에서 밝힌 소감이다.

일간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내용들을 연차순으로 집약시켜 놓은 이 책은 남화토건 임직원들의 교양과 삶의 지침이 되는 내용을

담아 발간해온 '남화 가족이 살아가는 길' 10권으로,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망라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최상준 회장의 발자취를 비롯해 단상론·기고문, 생애와 활동, 단체장 이·취임사와 발간사 및 축사 등이 수록됐으며,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최상준 회장은 “보도 기사를 평소 스크랩해 보관하던 중 버리기도 쉽지 않아 고민하다가 임직원들의 권유로 정리해 발간하게 됐다”며 “나이가 들수록 지극한 경험과 지혜의 향긋한 품격도 있지만 그동안 쌓아 소장한 주위 환경 정리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회장은 20년 전부터 모아온 자료들이 퇴색되는데다 스크랩한 신문마저 찢어져 역사와 증인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한 건설사에서 55년 동안 줄곧 기업경영에 투신해왔는데 여러 문제들을 껴안고 살아왔던 격정들이 소나무에 매달린 웅이처럼 가슴에도 무형의 웅이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면서 “이 웅이가 지난 삶이 남긴 발자국의 저장창고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삶은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내는 것이 맞다는 최 회장은 “살아낸다는 것이야말로 삶의 웅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준 회장은 전남 화순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경영일선에 투신, 한길을 걸어왔다. 전남대로부터 명예공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남화토건 대표이사·회장을 맡아 분주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2007년에는 수필로 문단에 데뷔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나눔 실천을 해온 최 회장은 100여회에 이를 만큼 헌혈을 주저하지 않는 등 국내 최고령 헌혈기증자로 알려져 있다.

광주은행

◆ 중소기업 특별자금 3천억원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추석을 앞두고 경영 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석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천억원을 편성해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안을 살펴 민생안정의 대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발 빠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3천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하여 이 기간 중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1.2%p를 우대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 '핫 서머 페스티벌' 개최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전대진)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2019 금호타이어 핫 서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핫 서머 페스티벌은 지난 2014년부터 6년째 금호타이어와 기아타이거즈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매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사로, 야구장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기아 챔피언스필드 1루 쪽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바캉스존의 미니 수영장에서 물놀이와 어린이 워터 슬라이드, 물대포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금호타이어가 OE용 타이어를 단독 공급중인 기아 신형 SUV 셀토스를 배경으로 금호타이어 전속 레이싱 모델과의 포토타임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보해양조

◆ 벤틀리 100주년 기념주 제작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 29일 세계적 명차 브랜드 '벤틀리(Bentley)'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벤틀리의 프리미엄 이미지에 걸 맞는 한정판 매취순을 중국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해양조는 지난 17일 장성공장에서 베이징 벤틀리문화유산공사(이하 벤틀리클럽) 씨웅딩궈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문화 협력과 기념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중국 내 1만여 명 벤틀리 자동차 소유주들이 소속된 '벤틀리 클럽' 회원만을 위한 한정판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 광주·전남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1위



호반건설(회장 김상열)은 지난 29일 국토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공사능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 4조 4,208억원으로 전남업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 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을 산출해 매년 7월 말 공시한다. 시평액은 공사 발주자가 입찰 제한을 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 제도를 운용할 때 근거로 활용된다.

II. 광주경충 소식

〈청년일경험드림-기업형 5기 성과공유회 개최〉

본회 청년일경험드림-기업형 사업은 지난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델리하우스에서 5기 기업형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5기 기업형 참여청년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월 동안 각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 및 직무별 네트워킹 모둠 활동에 대한 조별 발표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마무리까지 동고동락한 동기들에게 수고와 격려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노사민정협의회 제3차 실무협의회 개최〉

본회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31일 광주경충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3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하반기 노사민정 사업 추진계획 및 노사민정협의회 기능강화 연구용역 제안 설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청년일경험드림-기업형 6기 공통교육〉

본회 청년일경험드림은 지난 1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6기 기업형 공통교육 및 드림터-드림청년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6기 기업형 참여청년 110명과 참여기업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일정 안내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경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마지막으로 드림터-드림청년 간 만남을 통해 5개월 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직장생활과 직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II. 광주경충 소식

<제1453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8월2일(금) 오전7시에 광주산양파크호텔에서 서광원 인간 자연생명력연구소장을 초청하여 「사장이라는 자리, 왜 힘들까?」란 주제로 제1453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사장은 홀로서는 자리이다. 모든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 회사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사장은 자신의 문제를 포함하여 회사 전체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분투해야 하며, 회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사장은 남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다. 모두가 피해도 사장만큼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 전체의 생존과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많은 조언자들이 있지만 결국 모든 선택의 결과는 사장에게 있다. 실패도 성공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항상 불확실성을 품고 가는 자리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깊은 고민을 수반하는 일이다.

사장은 인내하는 자리이다. 나무를 가꾸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장은 "외롭더라도 혼자 가야 한다" 또한 "괴롭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불확실성과 싸워야 한다"



사무국 일지(7. 29 ~ 8. 2)

7. 29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청 노동협력관 사무국 내방 ● 사회적경제 민간거버넌스 2차 회의 참석 	8. 1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경험드림 6기 공통교육 및 드림터-드림청년 만남의 시간
7. 30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경험드림 5기 성과공유회 개최 ● NH농협광주본부 노사 상생 실천 협약식 		
7. 31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개최 	8. 2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53회 금요조찬포럼 ● 청년일경험드림 6기 2차 공통교육

1. 노사 동향

■ 고용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입법안 발표

○ 고용부는 7. 30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 비준과 관련된 추진 방안 발표

- 특히, 고용부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발표(4. 15)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한 노조법, 공무원·교원 노조법 공개

· 정부는 7. 31 ~ 9. 9까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참고]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노동조합법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인정 ▲기업별 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은 종사자인 조합원에 한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면제한도 초과요구 징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 ▲사업장내 생산·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2→3년)
공무원노조법	▲퇴직공무원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함 ▲노조 가입대상 직급 기준 삭제.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교원노조법	▲퇴직교원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함 ▲대학교원 교원노조 설립가입 허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

○ 금번 정부입법안이 발표되자 노사 모두 반발하며 입장 발표(7. 30)

- 경총은 “우리 노사관계 특수성과 후진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노사간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차원에서

Ⅲ. 노사 및 판례동향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 한국노총은 “▲노조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조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은 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라고 주장
- 민주노총은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 ILO 헌장과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다”라고 주장

■ 고용부,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및 고시 개정

○ 고용부는 7. 31 재량간주근로제 대상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게임·금융 상품 등 무형의 제품 연구개발 업무 등 포함
 -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스스로의 재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도 대상 업무에 해당
-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 범위’판단기준
 -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계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목표·내용·기한 등), 근무 장소’에 관한 지시는 가능
 - (업무수행 수단) 일정 단계에서의 진행상황 확인과 정보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회의·출장, 출근의무 부여 및 출·퇴근 기록 등은 가능하나, 보고·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경우는 불가
 - (근로시간 배분)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 시간대 설정 가능

III. 노사 및 판례동향

- 한편, 고용부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 개정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위원회 기능 및 의결구조 정상화에 주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7. 26 6인 대표자회의 개최하고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한 논의 진행

※ 6인 대표자회의 :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에 반대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으로 인해 본위원회 개최 및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본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비상조치로서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

- 금번 6인 대표자회의에서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경사노위 전면개편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

- 전국 규모 중앙노사단체 대표(3인)와 정부 대표(2인) 등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 본위원회 위원 17명 중 9명이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은 사임서 제출을 거부

[참고]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위원
경사노위(2)	▲문성현 위원장, ▲박태주 상임위원
정부(2)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 당연직
근로자(4)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당연직
근로자(4)	▲김병철(청년), ▲나지현(여성), ▲이남신(비정규) → 사임서 제출 거부
사용자(5)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 당연직
사용자(5)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공익(4)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계안 2.1 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 굵게 표시된 위원은 사임서 제출(9명)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한편, 금번 6인 대표자회의에서는 활동시한이 종료된 특별·의제별위원회 논의를 재개하고, 4개 신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향후 본위원회 개최시 승계하기로 결정

※ 특별·의제별위원회 :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 4개 신규위원회 :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 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 금속·금융분야 산별교섭 난항

○ 금속산업 노사는 7. 30 제12차 산별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도출 실패

- 금속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 난항

※ 제13차 교섭은 8. 13 개최 예정

[참고] 금속 산별노사 입장 주요 내용

금속노조 요구	사측 입장
[하청업체 노동권 보장] ▲ '노동 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를 하도급 업체 선정 기준으로 설정 ▲ 하도급 업체 '노동기본권 보장 등 이행'	▲ '노동기본권 준수 및 차별금지'를 하도급업체 선정 기준으로 설정 ▲ 하도급업체 '노동기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권고'
[금속산업 최저임금] ▲ 2020년 적용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	▲ 금속산업최저임금 8,600원(시급)과 월 통상임금 1,943,600원 중 높은 금액
[일터 괴롭힘 금지] ▲ 피해 근로자 범위 :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근로자 포함 ▲ 고통의 범위 : 정서적 고통 포함 ▲ 괴롭힘 목적 : 구조조정, 성과압박, 조합 탄압 포함	▲ 피해 근로자 범위 : '다른 노동자' ▲ 고통의 범위 :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한정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금융산업 산별교섭도 난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7. 29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융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

- 사측은 1.3% 이상의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총액 임금 기준 2.0%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조정 결렬

[참고] 2019년 금융산업 산별교섭 관련 노조 요구 및 사측 입장

구분	금융노조 요구	사측 입장	중노위 조정안
임금 인상률	▲ 총액기준 2.9%	▲ 총액기준 1.3%	▲ 총액기준 2.0%
저임금 직군	▲ 정규직 대비 80% 이상 수준으로 인상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 수용불가	▲ 사용자는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과거 인상률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적용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임금 피크제	▲ 복리후생, 성과급 차등 금지 ▲ 임금피크 적용 임금지급률 인상		▲ 기타 안건은 산별노사가 성실히 협의
후선역 제도 개선	▲ 급여삭감률 축소 ▲ 제도 단계적 폐지		

○ 금융노조는 9월 중 파업을 비롯한 투쟁계획 수립 추진

- 금융노조는 8. 7 「제8차 지부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향후 투쟁방향 확정 방침

· 투쟁방향 확정 시 8. 21 정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예정

- 다만 금년에는 임금교섭만 진행되는 점, 금융노조 임원선거 일정(12월) 등을 고려하면 금융노조가 투쟁국면을 장기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